

2024 새해 이렇게

김철우 보성군수

“600개 마을 가꾸기 사업, 문화 등 행정 전분야 확대”



고령자에 백내장 등 의료비 지원...청년후계농 농장 자립기반 구축 키위, 꼬막 버금가는 특산물 육성...참전 유공자 유족 수당 첫 지급

“보성 600개 마을을 가꾸는 보성600사업을 클린600, 복지600, 안심600까지 넓힐 뿐만 아니라 올해는 문화600사업을 처음 선보이며 보성군 행정 전 분야에 확대하겠습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광주일보와 최근 가진 새해 인터뷰에서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보성600 정신이 보성군 행정 전 분야에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는 민선 7·8기에 유지한 대형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498개 공공기관 대상 종합정령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보성군은 중앙정부의 긴급 재정 기조 속에서도 올해 본예산 증가율이 6.18%를 기록하며, 전남 22개 시·군 중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김 군수는 안정적 재정 기반 위에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을 만들기 위한 국정 핵심 5대 목표를 내걸었다. 이는 ▲소의 없는 복지, 군민과 함께 든든한 행정 ▲다 함께 잘 사는 농림축산어업 ▲매력 넘치는 문화·체육·관광 ▲안전한 군민과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 ▲권역별 지역개발로 균형 있는 발전이다.

복지 부문에서는 우리 동네 어르신 우리가 돌봄 사업 등 복지600사업이 핵심을 이룬다.

고령자에게 백내장 수술비와 틀니·임플란트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늘리고 30억원 규모 가족센터를 건립한다.

‘의향 보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난 2020년 처음 지급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참전 유공자 유족 수당도 처음 지급한다.

농업 부문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성 농업의 맥을 이을 방침이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사업, 농부 1인 방송 진행자(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보성키위를 보성녹차와 별고꼬막에 버금가는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고, 아열대 작물 지역 특화단지를 조성해 미래 전략 소득작물 재배도 확대한다.

축산 농가의 약취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커텐, 플라즈마 탈취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약취 저감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청암항·호산항 등 어촌뉴딜300 사업과 여자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낙지 산란 서식장 조성 등을 통해 보성의 바다 산업에 힘을 실는다.

김 군수는 “KTX-이음 시대가 도래하면 1000만 관광객 시대가 열릴 것”이라 보며 ‘매력 넘치는 문화·체육·관광’ 만들기에 나섰다.

2000억원대 규모 여자만 국가갯별 해양생태공

원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별고갯벌을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지로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과 보성프롬나드(산책로) 조성사업, 별고-장도 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굵직한 해양 관광 사업도 이어진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보성 차(茶)정원, 주월산 에코힐링 테마파크, 오봉산 주민 참여 숲 조성 등 특색있는 산림 관광 기반시설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보성 열선루 조성에는 1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곳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구국 정신을 반영한 ‘열선루 축제’를 열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한 260억원의 교육, 생활인구 유입 등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에 투자하겠다”며 “고향사랑기금사업, BS청춘마켓 개장, 청년 기업 승계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시 ‘국제 해양관광 휴양도시’ 조성 순조

뷰티·스파 웰니스 관광 거점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6년까지 개도에 탐방로 연결 여수 섬섬길 조성 내년 마무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앞둔 여수시가 ‘남해안 거점 국제 해양관광 휴양도시’ 조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수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남중권 웰니스 관광활성화사업의 하나로 ‘뷰티·스파 웰니스 관광 거점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오는 2026년까지는 섬박람회 부행사장인 개도에 생태탐방로를 연결하는 테마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벌인다.

88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서는 마녀목공원 등을 조성한다.

‘일레븐 브리지’는 국도 77호선과 연계해 조성하고 있다. 사도-남도 인도교 설치, 금오도 비렁길 4코스 출렁다리 개통을 통해 다양한 섬의 매력을 구축·구축 뱃별 계획이다.

내년까지는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와 연결된 적금도, 조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여수 섬섬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한다.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조발도 스카이워크가 완공되면 ‘섬섬길’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여수시 측은 기대했다.



여수시가 2026년 섬박람회를 앞두고 올해 ‘남해안 거점 국제 해양관광 휴양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돌산 향일암 권역 전망공원 조감도. <여수시 제공>

오는 3월에는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여수형 워크케이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여수시는 지난 한 달간 시범 운영을 마쳤다.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수시는 지난해 9월부터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과 세부사업 발굴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하고 있는 경도 해양관광단지과 여수철린지파크 건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돌산을 우두리 일원 밤바다 구간에는 10억원을 들여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돌산 향일암 권역에는 52억원을 들여 진입로와 전

망공원을 개선하고 경관특화사업을 벌인다. 해양관광뿐만 아니라 여수시는 행사·전시 복합사업인 ‘미스(MICE) 산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현재 연 1000억원대인 미스 산업 매출 규모를 오는 2026년까지 4000억원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여수시는 미스 1356건, 16만명을 유치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미스산업도시 분야 대상도 받았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 조생종 태추단감 전략작목 육성

생산단지 4.5ha 추가 조성...노동력 절감 신기술 도입

구례군이 전략 소득 작목인 조생종 태추단감 재배면적을 올해 늘리기로 했다.

구례지역에서는 이달 현재 문척면을 중심으로 17.6ha 규모 태추 단감을 재배하고 있다. 태추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는 22가구로, 구례군은 올해 생산단지를 4.5ha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생종 태추 단감은 구례군이 출하 기간이 편중된 단감 농가를 분산할 전략 소득 작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구례지역은 비옥한 토지와 높은 일교차를 지니고 있어 단감의 착색과 당도가 좋은 편이다. 과육이 연하고 식미가 좋아 고품질 단감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군은 지난해 전남도농업기술원 주관 ‘맞춤형 미래 전략 소득 작목 육성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태추 단감을 고부가가치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

고 있다. 2년간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노동력 절감형 신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다.

구례군은 다음 달 2일까지 ‘소비트렌드 맞춤형 단감 생산단지 조성 사업’ 신청을 받는다. 구례군에 주소록 둔 농업인, 농업인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태추 단감 묘목과 관수 시설, 지주 등을 지원받는다.

공모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내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기후변화와 농식품 소비 경향에 대응한 고소득 특화작목 육성을 통해 농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광양 주요 간선도로 잇따라 개통

국지도 58호선 완공...지방도 861호선 중마~망덕포구 왕복 10분

광양시는 국지도 58호선(중군-진상)의 15일 개통을 시작으로 지방도 861호선(진월-광영) 등 주요 간선도로를 잇따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은 중군동에서 옥곡면 신금리를 거쳐 진상면 섬거리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기존 도로가 선형이 굴곡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경전선 폐철도 노선을 활용한 신설 도로이다.

지난 2016년 착공해 7년여 공사 끝에 올해 초 준공하고 15일 오후 2시부터 차량 통행을 시작했다.

1091억원을 투입해 연장 9.15km 구간에 2차로로 교량 5개소 터널 1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등을 설치했다.

지방도 861호선은 진월면 망덕리에서 광영 하수처리장 인근으로 연결하는 도로이다. 광영교를 설치해 중마동과 망덕포구를 10분 안에 오갈 수 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과 함께 물류를 수송하고 출·퇴근 때 정체되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를 노렸다. 지난 2011년 이후 12년여의 공사를 마무리해 오는 27일 0시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744억 원을 투입해 연장 2.76km 구간에 2차로로 교량 2개소, 평면 교차로 3개소 등을 설치했다.

박옥병 광양시 도로과장은 “오랜 기간 추진해온 대규모 간선 도로망이 개통돼 우리 시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청사 건립공사 주차장 등 일부 폐쇄

임시주차장 90면 설치

순천시가 청사 건립공사 기간 시정 민원주차장과 주변 도로 일부를 폐쇄한다.

청사 공사기간에 따라 현장 인근 가설울타리(방음벽)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청의 남측주차장은 오는 29일부터 전면 통제하고, 청사 남측주차장 진출·입구를 기준으로 중앙1길 북측(장명로-민원인 주차장 입구)은 17일부터, 남측(중앙2길-민원인 주차장 입구)은 2월 15일부터 각각 순차적으로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현 청사 동편(현 민원실 앞) 주차장은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해 신청사를 건립하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부지 주변으로 임시주차장 90면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는 지난해 12월26일 착공에 들어가 2025년 말 완공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라오스 계절 근로자 30명 선발



곡성군과 곡성농협 대표단이 라오스 므앙티파발군(郡)을 찾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다음달 입국...5개월간 농가 투입

곡성군은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라오스 므앙티파발군(郡)을 찾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선발 면접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곡성군과 곡성농협 대표단은 라오스 므앙티파발군을 방문해 근로자 모집, 선발, 교육 과정 점검 등을 했다.

이번 면접을 통해 공공형 계절 근로자 30명이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입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5개월간 곡성지역 농가에서 근무한다.

곡성군은 면접에서 근로자의 나이, 결혼 여부,

부양가족 유무, 농업 경험, 건강 상태 등을 살폈다. 선발된 근로자들은 비자 신청, 농작업 실습, 한국어 교육, 무단이탈 때 불이익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았다.

곡성 대표단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등 4명에서 농가 필요한 근로자 유형과 입국 일정, 이탈 방지 대책 등을 협의했다.

곡성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총 119명의 계절 근로자 중 30명을 공공형 계절 근로자로 승인받았다. 이들은 딸기, 멜론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배치돼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흥군, 동계 전훈 40개팀 1000여명 유치

기후·먹거리 등 최적지 각광...경제 파급효과 20억원

고흥군이 야구, 축구, 배구, 역도, 탁구 등 40여 팀 1000여명의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했다.

고흥군은 올해 스포브릿지 및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2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팔영체육관 등 5개소의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박지성 공설운동장, 김태영 축구장, 야구장 2개소(금산, 도화), 테니스장, 탁구장, 역도장 등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세계적 온화한 기후와 청정지역의 먹거리가 풍부해 최근 스포츠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각광 받고 있다.

군은 40여 팀 1000여명의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 지역경제에 20억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전지훈련팀 방문 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관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 사전예약 서비스 제공으로 선수단은 물론 지역 상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일부터 11일간 축구 ‘스포브릿지’를 시작으로 2월 19일부터는 배구 5일, 야구 10일간의 전지훈련이 진행된다.

2월 29일에는 야구 스포브릿지와 전지훈련 마지막 일정으로 올해 동계 전지훈련이 마무리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 여건에 맞는 전지훈련 유치전략을 수립해 고흥을 특화한 전지훈련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